



김호신의 피렌체 여행기 영원한 봄을 찾아서

40. 보볼리 가든 (Giardino di Boboli)

보볼리 가든은 피티 궁전에 딸린 장대한 정원이다. 코지모 메디치 1세와 부인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가 피티 궁전을 사서 확장 공사를 시작했을 때 궁전 뒤 언덕 위로 정원도 짓기 시작했다. 니콜로 트리볼로가 설계를 하고 조르조 바사리, 바르톨로메오 암마니, 베르나르도 부온타렌티 등 당대 쟁쟁한 건축가들이 그 뒤를 이어 공사를 해서 정원을 완성시켰다. 16세기에 일단 완성된 정원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이어 내려오면서 계속 보수, 재건을 하며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한다.

피티 궁전 뒤로 돌아 올라가니 시야가 탁 트이며 넓은 원형 극장과 연못 등이 나타났다.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막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들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부터 계단을 올라가든, 오솔길을 걸어 가든, 어느 방향으로든 보볼리 가든을 둘러 볼 수 있다. 원형 극장은 처음에 테두리가 사철나무로 둘러싸인 소박한 공간이었는데 나중에 돌담을 쌓고 조각상을 세워서 지금의 웅장한 모습으로 변형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연못 안에 분수가 물을 내뿜는 것을 보고, 그 분수 가운데 넵툰 조각상과 그 외 조각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다.

“엄마, 보볼리 가든은 베르사이유 대정원에 비하면 조그맣고 소박한데, 피티 궁전은 아무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베르사이유 궁전도 여기 대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 피티 궁전을 보고 나면 아무도 자기가 부자라고 말 못할 것 같아.” 연초에 프랑스에 여행 가서 베르사이유 궁을 보고 온 R이 자신의 감상을 말했다. 오래 전에 나도 베르사이유 궁에 갔다가 그곳 정원을 둘러 보았던 기억이 났다. ‘정원’ 이라기보다 ‘장원’ 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방대하고 호화로운 대정원이었다. 루이 14세가 온 세상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추진했던 야심 찬 프로젝트였으니 목적에 잘 맞게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정원이다.

그에 비하면 보볼리 가든은 처음 지었을 때 일반에게 전혀 개방하지 않고 오로지 메디치 가의 개인 정원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큰 궁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오직 이 성에 사는 주인만이 사용하더니 정말 인간이 누려 볼 수 있는 호사

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워즈 엔드 (Howard's End)’ 라는 영국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 바로 그렇다. 어둠이 내린 저녁,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노부인이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끌면서 보라색 라일락 꽃이 떨어지는 정원을 홀로 거닌다. 지나가버린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즐거이보다 언제든 홀로 거닐 수 있는 정원을 소유한 그 노부인의 삶이 더 인상 깊었다. 이제 보볼리 가든에 들어와 보니 그렇게 잘 가꾸어진 유럽의 넓은 정원을 한적하게 거니는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았다. R과 나는 팔짱을 끼고 가족 정원에서 산책을 하는 귀부인과 딸처럼 느긋하게 오후를 즐겼다. 이제 피렌체 여행은 끝나가고 있는데, 보볼리 가든에서 보내는 오후 한 때는 우리 여행의 끝을 우아하게 장식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보볼리 가든의 곳곳에는 조각상과 분수, 그리고 작은 박물관과 전시관들이 흩어져 있어 걸어가는 코너마다 들러볼 수 있었다. 산책을 하다가 잠시 앉아서 커피와 차를 마셨을 것 같은 앙증맞은 ‘카페 하우스’, 이름이 너무 예쁜 ‘레몬 하우스’ 같은 조그만 집들도 있었다. 특히 보볼리 가든의 한 구석에는 피티 궁전과 베키오 궁전을 이어주는 ‘바사리 복도’의 입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문제 때문에 폐쇄되었고, 보수공사를 해서 2021년에 일반에게 다시 오픈한다고 들었다. 베키오 궁전에서 시작해 우피찌 미술관을 지나고 폰테 베키오를 거쳐 아르노 강을 건너 올타르노 구역의 집 지붕 위를 돌고 돌아 피티 궁전으로 들어오는 그 복도를 한 번 지나가 보았으면 참 흥미로웠을 것인데 아쉬웠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볼리 가든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피렌체를 내려다보기로 했다. 하늘은 새파랗고 뭉게구름과 새털구름이 섞여 흘러가고 있었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니 시원하게 피렌체 시가가 펼쳐졌다. 맑은 하늘, 부드러운 언덕과 산들, 붉은 벽돌 중세 건물 순으로 토스카나의 풍경과 피렌체 시가의 전경이 끝없이 펼쳐졌다. R과 나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향이 섞인 듯한 온화한 공기를 마시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렌체를 내려다 보았다. 수 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이 언덕에 올라와 피렌체를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 그 긴 행렬에 우리도 함께해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르네상스의 꽃이 피었던 중세 도시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은 그 언덕 위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는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찬란한 봄속에 서 있는 것처럼 피렌체를 눈과 마음에 담았다. “엄마는 나와 함께 피렌체에 와서 정말 행복해. 함께 와 줘서 고마워.” 나는 R에게 말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고맙지!” 착한 딸은 따뜻하게 대답하며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봄맞이 행사

3월 1일부터



- * 남자 컷 \$ 15
- * 여자 컷 \$ 25
- * 펌 \$ 50
- * 염색 \$ 50
- * 헤나염색 \$ 55
- * 셋팅펌 \$ 80 up
- * 매직펌 \$ 100up

* 예약 해주세요 *

Tel. 714.356.7042

DIVA Hair Salon 1180 S. Idaho St
디바 헤어살롱 La Habra, CA 90631

MY BABY, MY STYLE.
gemg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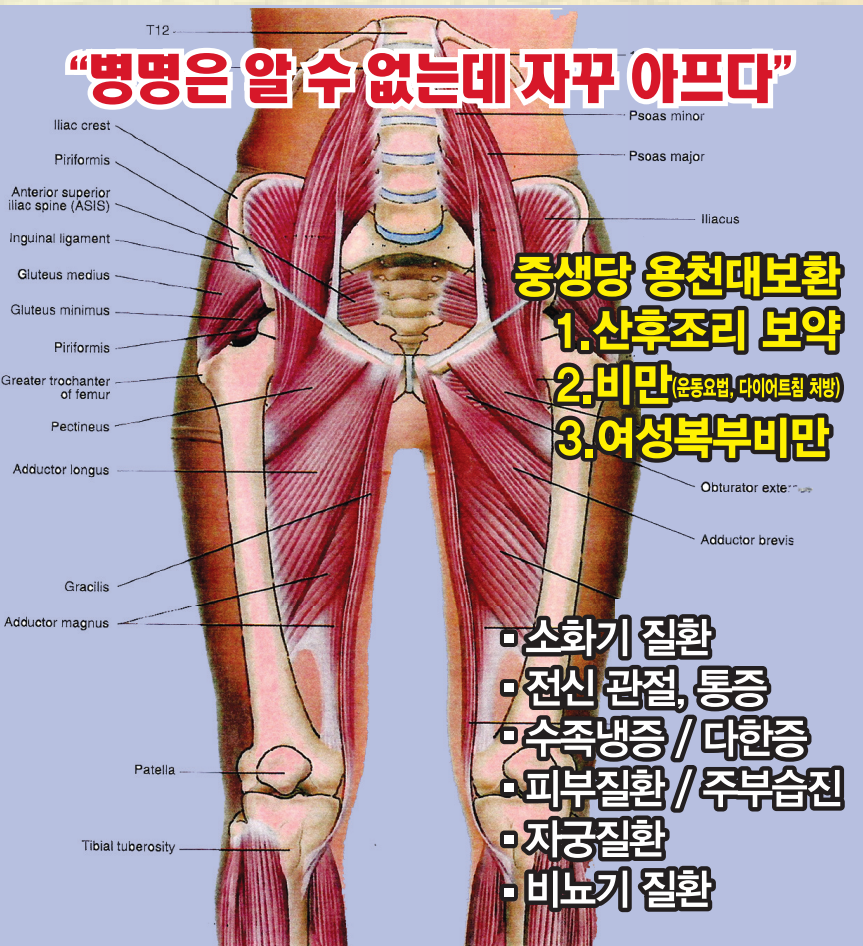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 T: 949.529.0715



중생당. 심부온열 CLINIC

“병명은 알 수 없는데 자꾸 아프다”



중생당 용천대보환
1. 산후조리 보약
2. 비만 (운동요법, 다이어트침 처방)
3. 여성복부비만

- 소화기 질환
- 전신 관절, 통증
- 수족냉증 / 다한증
- 피부질환 / 주부습진
- 자궁질환
- 비뇨기 질환

핸드 주파수 요법

바이오 R웨이브 테라피는 핸드 주파수 요법입니다. 핸드 주파수 요법은 미약한 전기를 단지손에서 경락, 경혈, 림프에 도입 시술하는 기술입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증진, 신체와 정신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드 주파수 요법을 바이오 R웨이브 테라피라고 합니다.

1. **생체 전류를 증가 생명력 활성화!!**
현대전화, PC,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약해진 생체전류가 높아지면 혈액, 체액의 흐름이 촉진되고 세포가 활성화하고 신진대사, 성장, 수복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뇌를 진정시키고 활력 업!!**
노파가 α 파 상태가 되면 β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억제합니다.
3. **신경의 밸런스를 정돈 기력 충실!!**
안압과 뇌의 압력을 정상화함으로써 신경 균형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심신이 편안하여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조절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시술자 자신도 고객과 함께 체내의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 시술자의 건강, 미용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4. **근육 스트레칭으로 기초대사 업!!**
미약한 생체전기가 손에서 경로, 경혈을 따라 흐르게 하기때문에 신체의 피로를 제거합니다. 또한 알포유에너지파의 작용으로 근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림이나 몸의 왜곡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뿐만아니라 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운동 상태를 만들어 지방연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생당 한방병원

* 넓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Tel 714-736-0075

Fax 714.736.0076

840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www.jungseangdang.com / Email : jungseangdang@gmail.com

